

病院 診療環境 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南 宮 棟

〈매일기획대표·인테리어 디자이너〉

병원 진료환경 디자인

70년대 이후 생활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분야가 급속하게 변했던 데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식도 변화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면서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형태로 인생관이 변모해 가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국민경제가 GNP의 성장과 함께 풍요를 더해감에 따라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의 갈망은 본능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고도성장속에서 국민이 향유하려는 최소한의 욕구들은 외적으로만 발산될 때 무턱대고 수혜 혜택의 폭을 넓히려는 아우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납세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도 하며 의무이기에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키 위한 「시민 근린 생활시설」의 환경적, 질적향상은 시민의식의 변화에 수반된 병원을 포함한 공익기관 전반의 과제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관이 시민 건강관리를 맡는 대중속의 대민 영업체로 보는 시민의 시각을 다른 각도의 차원으로 유도할 수 없는 상업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며 그 흐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졌다는 것이다.

생활근린시설이라 함은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필요시에 자주 드나드는 시설 업종이니 만큼 병·의원 역시 일반 쇼핑 매장 레스토랑 이·미용원 극장 약국 등등의 부류와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존재되며 분류될 수 있다.

허나 높은 공지와 권위를 지닌 고도지식 산업이란 점에서 타업종과는 다른 프라이드를 갖게 한다.

업태 역시 달라 의업은 그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하이 소사이어티」 그룹에 속한다. 그런데 의사의 인격에 걸맞는 진료환경 속에서 의업을 수행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인술을 집행하며 만인들로부터의 숭상을 받으며 존경받아야 할 의료기관인데 오늘날 의사를 보는 눈은 차가웁기만(?) 하다.

「환자 권리 선언」 발표를 두고 불신, 불친절의 원성은 더해가고 매스컴의 고발 보도는 으레 대서특필된다. 물론 극히 일부 의료기관의 오류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으나 시정의 아집은 바로 잡히질 않는다.

의사와 시민 양자사이에 갈등은 수혜자가 높은 지식의 인술을 경시하는데서 오는 견해, 인식의 대립이 그 동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을 떠나 의업을 생각할 수 없고 그들

인간 개체를 떠난 인술은 더욱 생각할 수 없다.

의학만이 인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유일한 학문 이기에 「이미지 디자인」을 통한 높은 訴求力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곧 「아카데미 디자인」은 의사 자신을 대변해주는 무언의 기침소리라 하겠다.

과거와 현실

70년대를 전후한 이전의 의료기관의 시설은 심히 낙후되어 전근대적인 디자인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interior visual design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백색 수성페인트의 획일적인 도장상태가 고작 이었고 여기 저기 부착된 체계없는 어나운스먼트 사인 보드물, 부적당한 실내자재의 마감재는 물론 기둥, 보(beam)가 그대로 노출된 채 적절히 부착된 형광등-동네 가게의 기능공들에 의한 작업 결과이기도 하다-등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아프면 찾아 오겠지」하던 일부 병·의원의 안이한 마음이 디자인에 대한 몰이해를 낳게하고 시설 투자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정부의 디자인 고급화 정책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물론 대기업의 수출판촉 정책에 힘입어 그 영향이 컸으며 다색문화의 꽃을 피운 칼라 TV 방영시대를 맞아 더욱 그러하였다.

각대학에선 디자인의 전문학과 증설이 붐을 이뤘고, 바야흐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해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였다. 모든 판매 전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디자인, 설계정책에 좌우된다고 믿는 산업혁명 이후의 「디자인 혁명」이 그것이었다.

뒤늦게 동면에서 눈을 뜬 우리나라의 디자인의 인식이 「인테리어 토탈 디자인」의 발아기를 지나 학문적 체계와 이론이 주어진 미학적 실내건축 붐이 일어나 오늘날 국제수준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의계에서도 기꺼이 받아들여 미와 기능을 추구하는 실내 설계의 독보적 전제를 굳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제 시장의 확보, 고객의 유치를 위해 환경 시설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오늘날 고도 지식산업에서도 제외될 수 없다. 쾌적한 실내 환경, 좋은 작업 분위기는 능력을 배가할 수 있으며 의업 특유의 개성과 지적 분위기를 웅변해줄 수 있는 실내의 디자인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生の 1/2을 진료권에서 사는 의사의 일과를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정서적 질을 향상하고 명량한 대민 서비스 진료에 힘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시각화 디자인 (Visual Design)

1. 병원의 진입로

병(의)원의 입구 진입로는 내원 환자들의 관문으로서 그 병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중요한 장소다.

담과 정문 디자인, 현관으로 들어오는 주변을 정돈하여 간결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사진 도로는 완만하게 구조변경하여 조경과 함께 보수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게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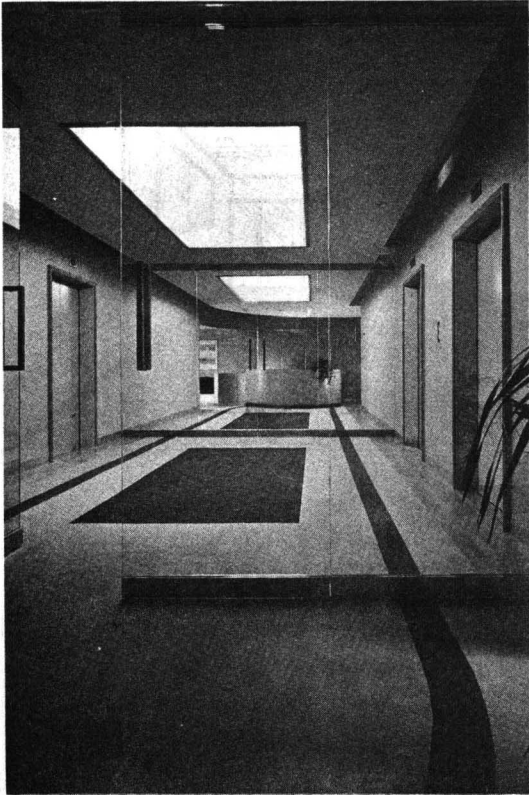
2. 현 관

현관문과 캐노피 그리고 밑의 돌계단 등 주변을 살펴본다. 현장 실정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정안의 설계를 받아 보수한다.

현관문은 일반적으로 템퍼드 글래스(강화유리도어) 문이 좋다. 두께가 12mm로서 칼라의 효과를 이용, 중후한 느낌이 든다. 현관과 같이 접해 있는 방풍실을 필히 신설한다. 「에너지 세이브」는 물론이며 대합실로 들어가기 전의 전실로서의 심리적 안도감을 주도록 한다.

방풍실은 좌우로 문을 설치분산(계속 진행 방향의 앞쪽문은 방풍기능을 감당하지 못함)시켜 복잡함을 덜어 주며 외기의 진입을 막아주게 한다. 방풍실의 3면 칸막이는 투명 유리(5mm 이상)로 막아주어 전망이 환히 들여다 보이도록 조치한다.

사용자재는 비철 금속이 가장 좋아 스테인리스 스틸을 들 수 있다. 1.2mm 두께에 무반사 가공한 것을 선택하며 예리하게 절곡되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방풍실의 천정엔 직부등을



바닥에 라인을 설치 신선한 속도감을 주기도 하면서 유도선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달고, 냉온풍 덕트 디퓨저를 연결 설치하여 외부에서 들어올 때 불편을 덜어준다.

3. 대합실

좋은 대합실은 환자들을 즐겁게 하여 준다. 안정과 정서를 기하도록 세심한 디자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내 조도, 천정, 벽체, 바닥의 디자인 안을 설계 받아 예산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포근한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갖게 한다.

의원급의 대합실은 더욱 가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연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진료과목에 따라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은 더욱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외과나 정신과들은 이들의 진료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부터 일반 진료과목과는 다른 디자인을 구상하여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합실의 천정은 백색텍스를 사용한 곳이 많으나 재보수시에는 mineral wool 을 주원료로한 흡음 불연(不燃) 천정재인 암면텍스가 좋다. 실내의 소음을 차단해 주기도 하며 현대적인 감각의 여러 패턴이 시판되고 있어 추천할만 하다. 이는 단열성(열전도율 0.05Kcal/mh℃)이 우수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해 주고 소프트한 질감(質感)을 주어 이상적이고 일반 텍스보다 고가이나 반영구적인 자재다. 특히 가벼워 밀도가 0.35g/cm³ 이하로 시공성이 좋고 건물 자체의 하중을 덜어 주기도 한다.

그외의 천정재로서는 각종 뿔칠재가 있는데 면적과 구조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 넓은 전면적을 이것들로 마무리 지지 않도록 평면천정보다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 과정에서 조명기구의 선택과 배열 크기를 연구하여 조도와 함께 설계되어야 하겠다. 벽체는 병원급 이상의 규모에서는 인코트, 본타일 뿔칠이 적절하며 의원급에서도 역시 좋으나 취향에 따라 작은 면적은 특수 도배가 효과적일 수가 있다. 벽체는 심한 변화를 주지 않고 심플한 평면이 좋아 데코레이션 시에 모던한 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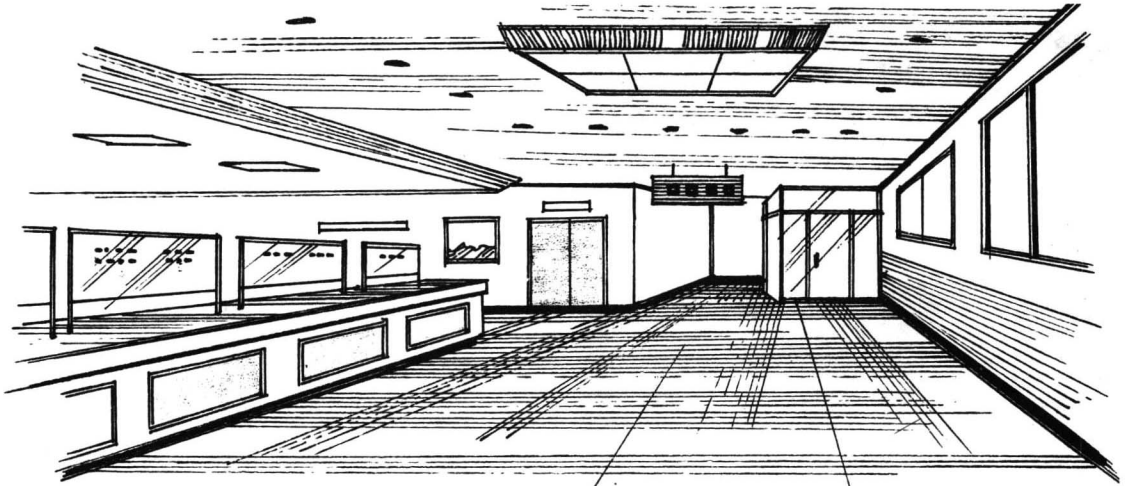
센스가 넘치는 연출의 디자인을 하여 오래 기역에 남도록 연구하여야 하겠다. 조명, 전기 공사는 재보수시에 배선재 일체를 교체(10년 이상의 구건물)하며 블랙커 스위치 시스템으로 개조 시설하는 것이 안전하며 220V 인입공사와 병행하여 차후 대책을 세우면 좋다.

조명기구는 형광등을 주로 사용하되 메인 램프만은 백열구로 제작된 것이라야 아늑한 조도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 형태는 가정형이어서는 안된다. 이 역시 디자인하여 그 대합실 면적에 적합한 바디를 주문 제작하는 것이 좋다.

다운 라이트(매립원형등)를 보조등으로 사용, 가능하면 메인 램프를 제외하곤 전부 천정안에 매립시키는 것이 좋다.

사인 시스템(Sign System)

병원의 대합실은 수많은 표지문자가 붙어 있다. 지시 안내문, 부서실명판 등 - 이는 디자인 코드네이션 프로젝트에 의거 일정한 문자체로 과학적인



병원 대합실의 매스터 플랜을 세워 coordination 화 한다.

체계의 시각화 디자인으로 통일 최대한의 미적·호소력을 갖게 한다. 문자와 그림문자를 병행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림 문자는 약화로서 그 과의 특징을 도안화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사용한다. 품위 있고 세련된 문자형을 도안해 사용토록 한다.

유도 사인 시스템

여러 차례를 통해 시행한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하여 확장된 각종 부서의 위치를 알리고 유도하는 화살표 등 표지체계가 현재 종합병원의 현안문제라 하겠다.

이는 몇몇 미술대학에 용역을 주어 시안 계획 수립을 완료한 병원이 있으나 명쾌한 해결안이 못되어 재수정작업이 한창이다. 이 유도 시스템의 그래픽 디자인에서 색별로, 각각 분류하여 「그룹별 칼라 기획안」을 세워 봄직도 하다.

또한 부서별 착용 유니폼을 칼라화(부분)하여 간호원의 복장을 통한 움직임은 유도방법의 하나로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플러쉬 도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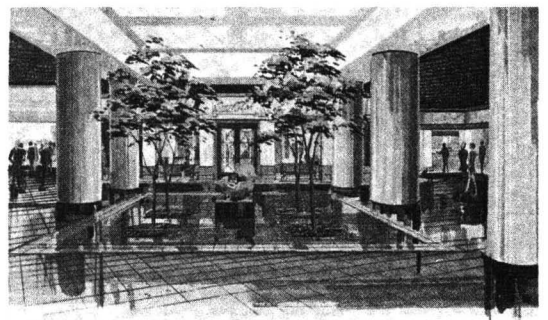
실내 환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게 하는 플러쉬 도어는,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합판으로 부판제작하여 토분을 칠한뒤 니스로 마감된 노란 색의 문이 대부분이다.

현대적 감각에서 뒤떨어진 형태로서 전문 디자이너의 설계를 요청하여 매스터 플랜에 포함시켜 개정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듈링제로 여러가지 형태의 품위 있는 디자인을 선택 세련미를 더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시각적 「어필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설계하여 병원 전체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그 지역의 민도, 특성등을 고려 디자이너의 용역설계를 시행 신뢰받는 병원상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세일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시설의 현대화 디자인을 통해 경영쇄신할 수 있는 기회 포착이 필요하다. *



실내에 관엽식물을 배치, 조각품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